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와 시사점
- 서비스시장의 경쟁촉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와 시사점

- 서비스시장의 경쟁촉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i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1

2.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의 국제 비교 2

3.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 5

4. 시사점 10

■ HRI 경제 지표 15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서비스업은 높은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1인당 실질부가가치 생산액이 제조업의 약 45%에 불과할 정도로 저생산성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불과 1995년까지 만해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다만 1996년에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을 상회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였고 지금까지 그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의 국제 비교

이러한 '생산성 역전'의 시기는 경제 발전 단계와는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G7국가들 중에서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90년대 중후반에 와서야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후반이 '신경제', '생산성 역설' 등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세계 제조업이 원래부터 자본집약적 산업이었는데 당시 IT의 빠른 보급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90년대 이후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정도가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이다. 1990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성 배율은 1.44배로 G7평균(1.06배)보다 높았으나 2007년에는 0.45배로 선진국 평균(0.7배)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서 보면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990년 G7의 38% 수준에서 2007년에 70%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G7의 57% 수준에서 42%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 의 원인

이와 같이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했던 원인으로는 첫째,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의 협소성을 들 수 있다. 2007년 기준 국내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선진국 평균의 19%에 불과하다. 또한 경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해 주기 위해 서비스 내수시장/GDP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에서도 한국은 55%로 7개국 평균인 63%보다 낮았다.

둘째, 서비스업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여 협소한 국내 서비스시장마저도 해외 제품에 잠식되고 있다. 한국의 2006년 서비스업/제조업의 R&D 투자 비율은 8%로 OECD 19개국 평균인 2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쟁력의 취약으로 이어져 2007년 부가가치 기준 수입침투율은 13%로 G7 평균인 7%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셋째, 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외환위기 충격 등으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 유입이 과도하였다. 중국산 경공업 제품의 수입 증가,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유휴노동력이 급격하게 서비스업으로 이동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서비스업 내 시장경쟁 촉진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서비스업은 산업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취약부문으로 인식되어 높은 규제 강도가 지속되었다. 특히, 일부 업종에 대한 인허가제도, 전문가 자격증 제도, 영리화의 금지 등으로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독과점과 카르텔의 폐해를 가져왔다. 이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 뜨려 소비자에게도 손해가 되었지만, 결국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였다.

■ 시사점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내 대표적 저부가 업종인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시장 개방과 해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를 통해 시장의 협소성이라는 제약을 벗어나야 한다. 넷째,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및 진입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 강화와 상품-서비스 융복합 제품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확대

○ 국내 서비스업은 2009년 현재 명목 GDP 대비 55%, 고용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산업

- 2009년 기준 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은 약 581조원으로 명목 GDP 1,063조원의 55%, 제조업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 266조원의 2.2배의 규모임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2009년 현재 1,595만명으로 경제 총취업자 2,351만명의 68%, 제조업 취업자 384만명의 4.2배임

○ 그러나 서비스업은 높은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아 비효율성이 큰 산업으로 인식

- 그러나 1970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약 3배에 달하였으며 불과 1995년까지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1996년을 기점으로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역전하여 2007년 현재 제조업의 45%(2008년 약 43%)에 불과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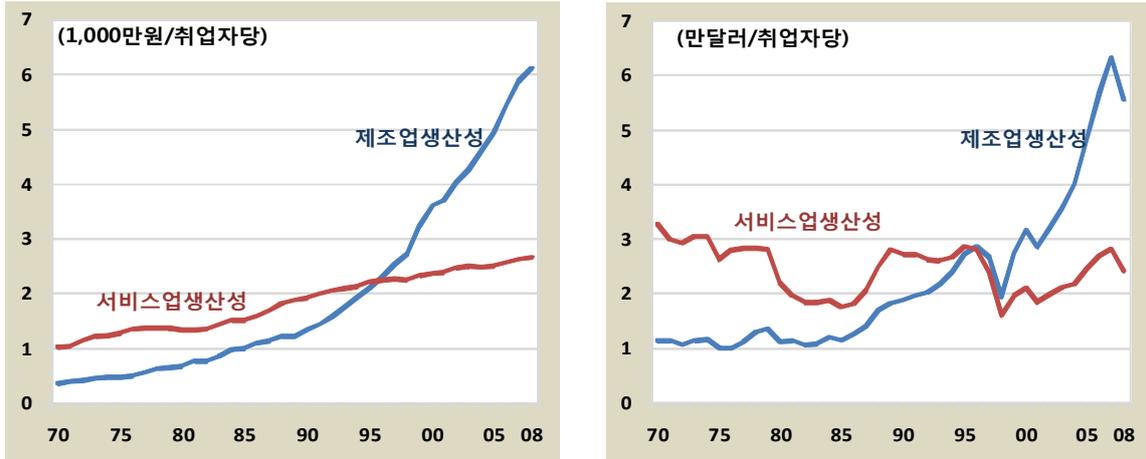
○ 추세적으로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상승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체되는 모습

- 원화 실질 가격 기준으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 약 350만원에서 2008년 6,100만원으로 약 17배가 상승한 반면
 - 원화 실질 가격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 약 1,000만원에서 2008년 2,700만원으로 2.7배 상승하는 데에 그침
- 특히 달러화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70년 이후로 정체되는 모

습을 나타냄

- 달러화 실질 가격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 약 3만 3,000달러에서 2008년 2만 4,000달러로 오히려 감소함

< 한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원화 기준 및 달러 기준) >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계산. 주: 실질가격 기준.

2.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의 국제 비교¹⁾

○ 이러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역전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조업의 생산성이 어느 순간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상회하고 그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집중도가 높고 IT 기술의 채용이 용이하다는 산업적 특성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됨
- G7 국가들 대부분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90년대 중후반 생산성 역전 현상이

1) UN STATS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를 이용하여 약 200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 생산액이 전세계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 상위 10개 국은 G7 국가, 스페인, 중국, 브라질이 해당됨. 이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G7국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음. 상위 10개국 및 한국의 순위는 “【별첨 1】 세계 서비스 생산 상위 10개국의 서비스생산액 비중” 참조.

발생함

- 제조업 생산성이 서비스업 생산성을 하회한 시기는 미국 1994년, 프랑스 1999년, 독일 1997년, 일본 1998년 등 대체로 90년대 중후반임
- 예외적 국가로 영국(1985년), 캐나다(1977) 등은 일찍이 생산성이 역전되었으며, 이탈리아는 2007년 현재에도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높음

○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확대중이라는 점

-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한국의 서비스업/제조업 생산성 비율은 선진국보다 높았으나 2000년경에는 선진국의 비율을 하회하고 있음
- 서비스업/제조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가지고 국가별 비교를 해 본 결과 현재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 서비스업/제조업 노동생산성 비율은 제조업의 45% 수준에 불과함
 - 이는 G7국가 평균의 76%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미국의 62%와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7국가와 한국의 서비스업노동생산성/제조업노동생산성 비율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한 국	1.97	1.52	1.44	1.05	0.66	0.51	0.47	0.45
미 국	1.48	1.22	1.09	0.91	0.77	0.66	0.64	0.62
영 국	1.14	0.99	0.83	0.76	0.77	0.66	0.64	0.65
프 랑 스	1.44	1.35	1.25	1.08	0.94	0.83	0.83	0.82
독 일	—	—	—	1.02	0.90	0.80	0.75	0.75
이탈리아	1.79	1.48	1.31	1.16	1.09	1.11	1.07	1.07
캐 나 다	0.98	0.83	0.81	0.71	0.64	0.64	0.64	0.63
일 본	1.27	1.17	1.08	1.06	0.93	0.78	0.76	0.76
G7 평균	1.35	1.17	1.06	0.96	0.86	0.78	0.76	0.76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계산.
 주: 일본의 2007년 수치는 2006 수치를 사용.

○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는 선진국보다 빠르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년 G7평균의 38% 수준에서 2007년에 70%로 상승
 - 1995년 제조업의 실질가격 기준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약 1만 9,000달러이었으며 G7 평균은 약 5만 달러임
 - 2007년 제조업의 실질가격 기준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약 6만 3,000달러로 G7 평균이 약 9만 1,000달러의 약 70% 수준임

-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G7평균의 57% 수준에서 42%로 오히려 하락
 - 1995년 서비스업의 실질가격 기준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약 2만 7,000달러이었으며 G7 평균은 약 4만 8,000달러임
 - 2007년 서비스업의 실질가격 기준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이 약 6만 6,000달러로 1990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한국은 약 2만 8,000달러로 거의 정체됨

-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는 제조업의 빠른 생산성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성 개선 속도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 G7국가와 한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추이 (달러 기준) >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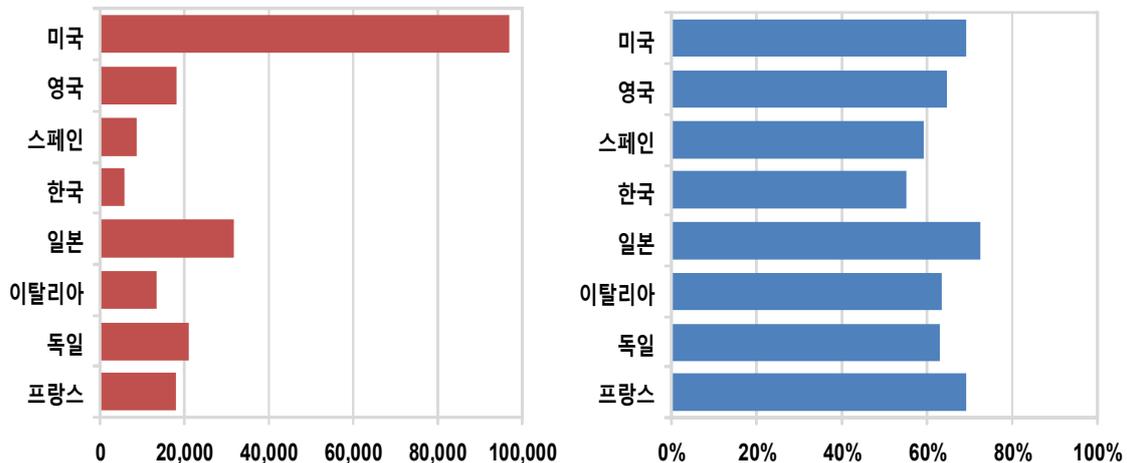
주: G7국가중 일본 2007년 수치는 2006년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

3.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의 원인

○ 서비스 시장의 절대적 규모의 협소성으로 인한 산출 확대 제약

- 서비스업은 특성상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나 국내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7년 국내 서비스업의 명목가치는 약 5,800억 달러로 주요 선진국들 평균의 19%에 불과함
-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주기 위하여 서비스 내수 시장/GDP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 한국은 55%로 7개국 평균 63%보다 낮은 수준임
 - 프랑스의 서비스 내수 시장/GDP 비중은 69%, 독일 63%, 이탈리아 63%, 일본 72%, 스페인 59%, 영국 65%, 미국 69% 등

< 서비스시장 규모 (2007년, 억달러) > < 서비스시장규모/GDP 비중 (2007년) >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계산.

주: 1) 서비스시장 규모 = 서비스 부가가치 생산 - 서비스수출 + 서비스수입.

2) 캐나다는 OECD 통계상 자료 미비로 서비스시장 규모 추정 불가, 대신 스페인을 제시.

○ 서비스 연구개발투자 미흡으로 기술경쟁력 및 효율성 취약

- 산업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알려진 R&D 투자의 경우 절대 금액면에서 한국은 2006년 경상 PPP 기준 약 20억 달러에 불과함
 - 절대 금액 면에서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733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다음으로 일본이 9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캐나다, 독일 등도 45억 달러 내외를 나타냄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R&D 투자 비중도 한국은 8%로 OECD 19개국 평균 29%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서비스업 R&D투자/제조업 R&D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54%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도 42%의 높은 비율을 기록함
 - 한편 한국과 같이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일본과 독일은 각각 9% 및 10%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주요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R&D 지출 (2006년 기준) >

	제조업 R&D 지출 (억 달러)	서비스업 R&D 지출 (억 달러)	서비스업/제조업 R&D 지출 비율
캐나다	76.8	45.6	59 %
독일	431.4	45.2	10 %
이탈리아	68.3	24.9	37 %
일본	964.0	91.0	9 %
한국	250.1	19.6	8 %
스페인	52.9	28.8	54 %
미국	1,727.3	733.1	42 %
OECD 19개국	3,754.2	1,086.4	29 %

자료: OECD STAN R&D Expenditure in Industry (ISIC Rev. 3) ANBERD ed2009.

주: 1) R&D 지출액은 경상 PPP 미국 달러화 기준.

2) G7국가중 영국, 프랑스는 R&D 데이터 결측으로 제외, 대신 스페인 자료를 삽입.

○ 서비스업에 대한 미약한 R&D 지출은 기술경쟁력 취약으로 협소한 국내 서비스시장마저도 해외 제품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

- 2007년 최종재 부가가치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 시장에서 수입품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수입침투율은 13%로 G7국가 평균 7%를 상회함
 - G7 국가중 독일과 영국이 12%로 수입침투율이 높은 편이며, 미국과 일본이 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OECD IO 자료를 이용하여 중간재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서 수입침투율은 2005년 기준 약 6%임
 - 이는 독일(4%), 캐나다(2000년 기준 4%),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 일본 1%, 미국 0.5%로 한국보다 낮은 수준임

< 서비스 시장에서의 수입침투율 추이 >

(최종재 부가가치 기준)



(중간재 포함 산출액 기준)

	1995	2000	2005
한국	4.3%	5.9%	5.6%
미국	0.3%	0.5%	0.5%
영국	3.2%	3.7%	3.5%
프랑스	2.1%	1.9%	2.9%
독일	2.5%	3.9%	4.1%
이탈리아	2.9%	3.3%	2.9%
캐나다	5.9%	4.2%	—
일본	1.7%	1.7%	1.3%

자료: OECD STAN, OECD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1) 최종재 부가가치 기준 수입침투율은 서비스수입 / (서비스 부가가치 생산 - 서비스수출 + 서비스수입)으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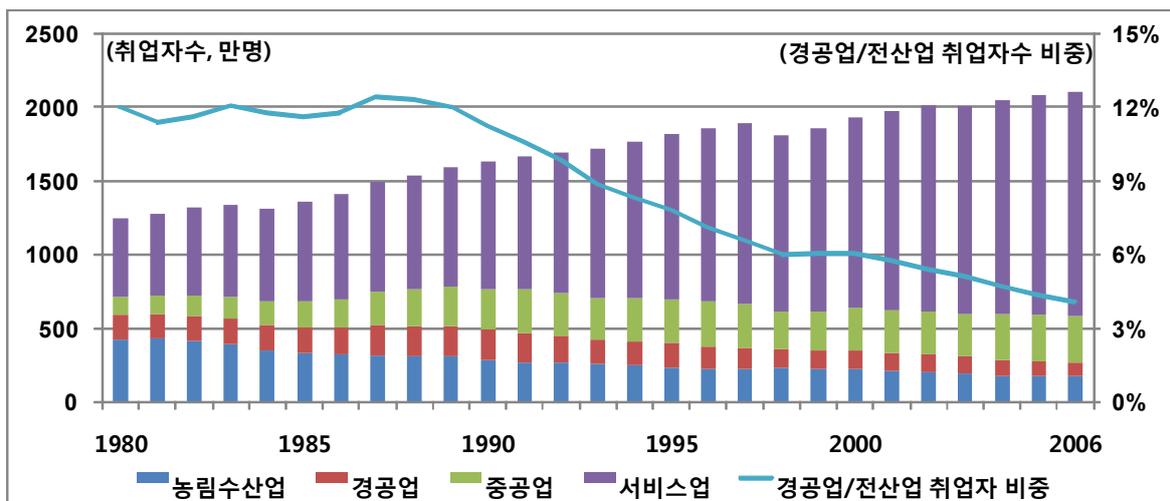
2) 중간재 포함 산출액 기준 수입침투율은 서비스 품목의 수입품공급/총공급으로 정의

3) 공급은 중간재, 소비, 투자의 합.

○ 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외환위기 충격 등으로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력의 유입이 발생

-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고성장에 따르는 인접효과와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경험함
 -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과 경공업 제품의 수입이 국내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판단됨
 - 1980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은 약 3,000만 달러로 총수입의 0.1%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23억 달러(3% 비중), 2000년 128억 달러(8%), 542억 달러(17%)로 지속적으로 규모와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경공업 등의 비교열위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대규모의 유휴 노동력이 발생하였으나, 국내 서비스업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여 고용흡수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의 과다유입이 발생함
 - 경공업 취업자수는 1980년 164만명(전체 취업자중 12%) 2006년 94만명(4% 비중)으로 감소함
 -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980년 528만명에서 2006년에는 1,527만명으로 약 3배가 급증함

< 주요 산업의 취업자수 및 경공업/전산업 취업자 비중 >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계산.
 주: 기타 산업의 취업자수는 생략.

○ 서비스업 내 시장경쟁을 촉진시킬 인프라가 취약하여 비효율성이 높아짐

- 최근까지도 제조업이 경제 성장의 중심이고 서비스업은 보호해야 될 경제 내 취약 부문으로 인식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 제조업 분야에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진입규제비율은 57.3%로 제조업의 23%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진입 규제 현황 >

	업종수(A)	진입규제업종수(B)	진입규제비율(B/A)
제조업	142	33	23.2%
서비스업	150	86	57.3%
금융·보험	13	5	38.5%
부동산·사업서비스	32	14	43.8%
보건·사회복지서비스	6	5	83.3%
교육서비스	5	2	40.0%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2006.8)에서 인용.

-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정책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가 지속됨
 - 우선 정부 차원에서 금융, 통신, 방송 등 전략기간 산업에 대한 인·허가 제도를 통해 시장 진입을 통제하였음
 - 또한 의료, 법률, 회계 등과 같이 이해집단이 전문가 자격증을 수단으로 시장 공급을 조절함에 따라 시장 진입이 제한을 받는 업종도 상당수임
 - ※ 한국의 1인당 변호사수는 OECD 평균의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8 OECD Economic Surveys-Korea)

- ※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0 OECD Economic Surveys-Korea)
- 특히, 교육, 의료 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을 중시하여 해외자본은 물론 국내자본에 대한 시장개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제약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근까지도 서비스업에 대해 시장경쟁을 촉진할 인프라가 미약하여 산업 효율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

4. 시사점

첫째, 서비스 업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 서비스업 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가 미약하여 전문성 및 품질 수준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 수요의 해외유출과 서비스수지 적자가 유발되고 있음
 - 서비스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리스크가 제조업에 비해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는 보조금 지급 확대, 연구 산출물과 기술에 대한 매입 보장 등으로 정부가 시장개설자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임
- 특히, 서비스업내 M&A를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세성을 극복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이 무형의 형태를 가지는 서비스기업 자산에 대한 업계의 공통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둘째, 서비스업 내 대표적 저부가 업종인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전통서비스업이 과당경쟁 업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책은 자칫 시장 질서의 왜곡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 정부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한계 기업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한정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성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정보화 확대, 타 산업과의 연계 강화, 브랜드화 등을 통해 자체 수요기반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셋째, 대외 시장 개방과 해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를 통해 시장의 협소성이라는 제약을 벗어나야 한다.

- FTA의 확산, 글로벌화 등으로 비교역재로 여겨졌던 서비스 부문의 교역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 향후 서비스업의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국제경쟁력이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
-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있던 교육, 의료, 사업서비스 등의 부문의 경우 점진적 시장개방을 통해 글로벌 경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정부가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3조 원의 수출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와 같이,
 -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서비스업중 경쟁력이 있는 유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출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넷째,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및 진입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 정부도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이 불합리적인 규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최근 상당수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성이 높은 일부 업종의 경우 여전히 신규 자본의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신규 시장 진입 자본에 대한 인·허가 제도의 폐지, 자본의 성격에 대한 제한 완화, 전문가 자격증 제도의 대상 업종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업이 시장 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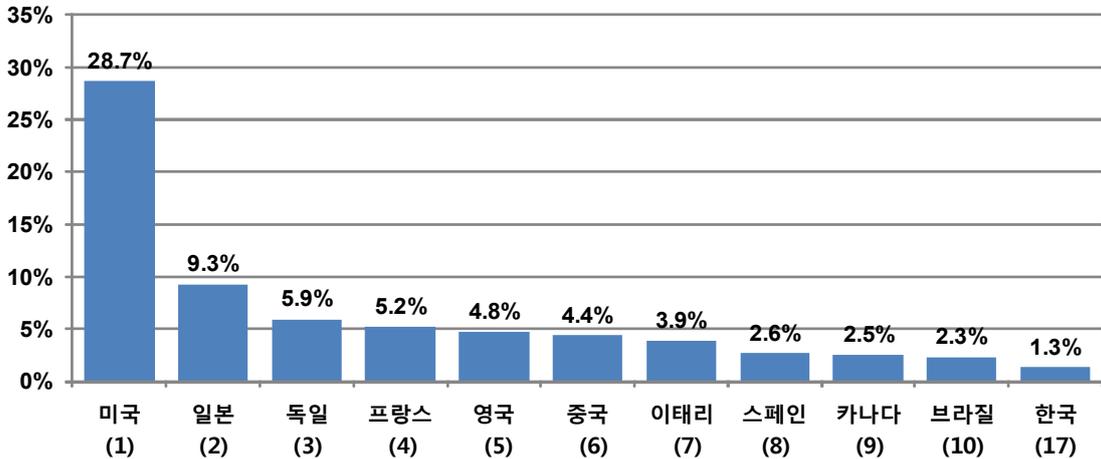
다섯째, 제조업-서비스업간 연계 강화와 상품-서비스 융복합 제품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 제조업의 그 후방효과가 큰 서비스업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의 높은 노동생산성이 서비스업에 파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 의료기기 및 제약업의 연계, 필수소비재 생산업 - 제품 렌탈업의 결합, 자동차 - ITS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결합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특히 새로운 개념의 이중 용·복합 상품 개발과 상업화를 적극 유도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최근 휴대폰 제조업과 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융복합상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별첨 1】 세계 서비스생산 상위 10개국의 서비스생산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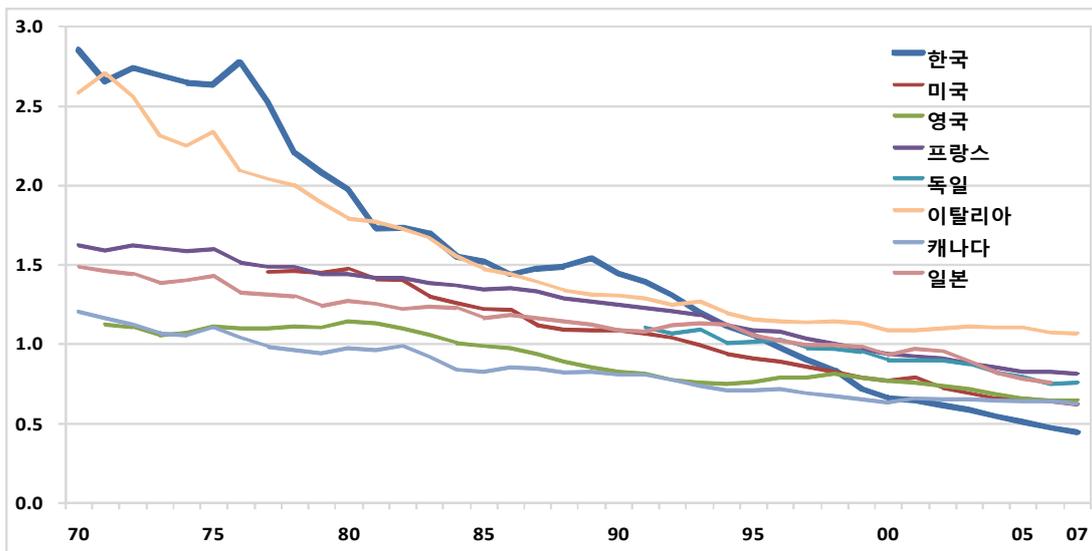
< 국별 서비스생산액 / 세계 서비스생산액 (2008년 기준) >



자료: UN STATS National Accounts Main Aggregates Database를 이용한 자체 계산.
 주: 괄호 안은 세계 순위.

【별첨 2】 한국 및 G7국가의 서비스업/제조업 노동생산성 비율 추이

< G7국가와 한국의 서비스업노동생산성/제조업노동생산성 비율 >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계산.
 주: 일본 2007년 수치는 2006년 기준.

【별첨 3】 한국 및 주요 국가의 서비스 교역 비교

○ 해외 시장에 대한 서비스 수출도 규모 자체로는 미약한 수준이나, 제조업 수출 규모나 GDP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

- 2007년 기준 국내 서비스 수출은 590억 달러로 선진국 평균인 2,100억 달러의 약 30% 수준
- 그러나 상품수출이나 GDP 규모 대비 비중은 작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수출/상품수출 비중은 일본, 독일과 비슷한 15% 내외를 기록
 - 특히 경제규모를 고려하기 위해 서비스수출/GDP 비중을 계산해 본 결과 한국의 비중은 6%로 영국, 스페인, 독일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다만,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 국가의 경우 서비스 수출의 상당 부분이 항공운송, 해운운송 등 제조업 상품 수출 변동에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독일 등과 한국의 서비스수출/상품수출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 수출입 및 수지 규모 (2007년) >

(자료: 억 달러)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서비스 무역수지	서비스수출 /상품수출	서비스수출 /GDP
캐나다	665	832	-167	15%	5%
프랑스	1,374	1,327	47	25%	5%
독일	2,169	2,544	-375	16%	7%
이탈리아	1,132	1,226	-94	23%	5%
일본	943	1,256	-313	14%	2%
한국	590	741	-151	15%	6%
스페인	1,240	974	266	47%	9%
영국	3,014	2,118	897	68%	11%
미국	5,165	3,821	1,344	45%	4%

자료: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계산.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7	2008 ^P	2009 ^P					2010 ^E		
				1/4	2/4	3/4	4/4	연간	1/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1	2.3	-4.3	-2.2	1.0	6.0	0.2	8.1	5.3	
	민간소비 (%)	5.1	1.3	-4.4	-1.0	0.7	5.8	0.2	6.3	4.1	
	건설투자 (%)	1.4	-2.8	2.8	5.1	4.4	5.0	4.4	2.3	2.2	
	설비투자 (%)	9.3	-1.0	-23.1	-17.3	-7.0	13.3	-9.1	29.9	13.0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59	-58	86	131	104	106	427	12	130
		무역수지 (억 \$)	146	-133	30	170	102	124	426	33	180
	수출 (억 \$)	3,715	4,220	744	904	948	1,040	3,635	1,014	4,350	
		증감률 (%)	(14.1)	(13.6)	(-25.2)	(-21.1)	(-17.6)	(11.7)	(-13.9)	(36.2)	(19.7)
	수입 (억 \$)	3,568	4,353	714	740	848	929	3,231	981	4,170	
		증감률 (%)	(15.3)	(22.0)	(-32.7)	(-35.6)	(-31.0)	(1.4)	(-25.8)	(37.3)	(29.1)
소비자물가 상승률 (%)		2.5	4.7	3.9	2.8	2.0	2.4	2.8	2.7	3.1	
실업률 (%)		3.2	3.2	3.8	3.8	3.6	3.3	3.6	4.7	3.6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68	94	44	59	68	75	62	76	8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929	1,103	1,418	1,286	1,239	1,168	1,276	1,143	1,110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